

보도자료

○주최 및 주관

-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꿈사니즘 위원회

K-브랜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원장 황교익),

K-만화웹툰분과 세미나

○ K-브랜드특별위원회, K-만화웹툰분과

이재명 대선 후보와 문화로 물들이는 진짜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웹툰 종주국의 길, 세계로 이어지다' 주제로 세미나 개최

○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K-브랜드특별위원회와 K-만화웹툰분과 주최로 '웹툰 종주국의 길, 세계로 이어지다'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 이번 세미나에는 K-브랜드특별위원회 황교익 위원장, 김신 중부대학교수/웹툰협회 회장, 박세현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 회장, 김종옥 한국만화웹툰학회 정책연구소장, 박지현 한국웹툰산업협회 부회장, 박연조 웹툰협회 부회장 등 만화, 웹툰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창작자, 웹툰 기업, 평론가, 연구가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황교익 K-브랜드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세계인들이 한국 콘텐츠를 트렌디하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그 중심에 웹툰이 서 있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사회를 맡은 김신 웹툰협회장은 "만화가로서, 웹툰 종주국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과거 만화가 탄압받던 시절부터 현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회고하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 이어 박세현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장이 'K-웹툰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산업적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박세현 회장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현장에서 체득한 글로벌 전략과 경험을 공유하며, "최근 월간 웹툰 이용률이 10% 감소했다는 통계 속에서, 다시금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최우선 대안으로 글로벌 전문 인력과 에이전시 육성, 독립적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종옥 한국만화웹툰학회 정책연구소장은 'K-콘텐츠 산업은 왜 웹툰을 주목하는가?'라는

주제로 웹툰의 산업적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그는 웹툰의 핵심 경쟁력으로 콘텐츠의 독창성, 접근성, 팬덤, IP 확장성, UX 혁신성을 제시하고, 다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 맞춤형 현지화 전략, 웹툰 고유식별체계와 저작권·아카이빙 기관 설립 등의 구체적 제안을 덧붙였다.

○ 발제를 맡은 박세현 회장과 김종욱 소장은 다른 주제와 시각으로 접근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발제 모두 한국 웹툰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전략을 제시하며 세미나의 깊이를 더했다. 김신 협회장은 "이제는 반복된 논의가 아닌 실천과 반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새로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박지현 한국웹툰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업과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사회 정세가 웹툰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웹툰의 상상을 뛰어넘는 비정상적이고 불안한 정세보다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대한민국의 일상이 웹툰 산업에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 토론자인 박연조 웹툰협회 부회장은 "지금의 문제는 플랫폼의 지나친 쏠림 현상"이라며, 대형 웹툰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돈을 버는 콘텐츠를 원한다면, 그 콘텐츠를 만들 작가와 제작사를 길러야 한다"고 말하며, 창작자 육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 K-브랜드특별위원회와 K-만화웹툰분과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주요 논의들을 정리하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에 정책 제안서로 제출할 계획이다. 끝.



*보도자료 문의 : 김신 수석부위원장(중부대 교수), 010-8723-2113